생산일 : 99. 11. 29

이 자료는 99년 11월 30일(화)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報 道 參 考 資 料

題目 : 중장기비전「금융부문」공청회 개최

主要內容

□「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」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「금융부문」에 대한 공청회를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.

○ 일 시 : 1999년 11월 29일(월), 오후 3:00 ~ 6:00
○ 장 소 :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
○ 주제발표 : 김세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
○ 사 회 : 남상구 고려대 교수 한국금융학회 회장
○ 토론자(가나다순) :
노성태 (한국경제신문 주필)
박상용 (연세대 교수)
신이영 (생명보험협회 상무)
조윤제 (서강대 교수)
윤병철 (하나은행 회장)
하영구 (시티은행 지점장)
황건호 (한진증권 사장)

※ 별첨 : 공청회자료 및 요약

보도참고자료 생산과 :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(☎ 500-5343)

財政經濟部 公報官

63

— 요 약 —

□ 지난 2년간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으며, 지금까지의 금융 구조조정은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오고 있음.

□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부실을 제거하는 금융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동안, 선진 각국에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혁신과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미래를 준비

□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새 천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금융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고,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이 필요

  ○ 금융연구원은 한국은행, 증권연구원, 보험개발원, 한국개발연구원, 언론계 및 컨설팅사의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우리 금융의 비전 및 발전 전략과 정부의 정책과제를 도출

□ 특히, 비전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정책 과제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, 민간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

□ 21C에 들어가 세계금융시장의 통합 가속화, 겸업화 확대, 사이버 금융 확대, 금융기관간의 대형화 경쟁 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금융기관 경쟁력의 원천은 대형화에 의한 자본력과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, 정보기술의 투자 및 응용 능력,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전문화 능력이 될 것임.

□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서 국내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비전과 발전 전략을 도출하였음.

□ **21C 한국 금융**의 **비전**은 **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으며,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아시아에서의 중추적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**하는 것임.

□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**전략**의 **기본방향**은,

○ **시장원칙**을 **확립**하여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하며,

○ **경쟁**을 **촉진**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,

○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**금융기관**의 **건전성 확보**

□ 비전 달성의 **핵심 전략**은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**▶ 정부 · 금융 · 기업의 관계 재정립, ▶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, ▶ 금융 인프라의 구축, ▶ 금융의 국제화 추진**으로 선정하고 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

□ 금융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

○ 채권시장 하부구조 정비 등 시장원칙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

○ 증자, 해외자금유치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및 부실 금융기관의 조기 퇴출 유도

○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내부 역량 강화

○ 공적자금 회수 계획을 수립하여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

○ 금융기관 및 기업 부실 책임자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 추궁 및 구상권 강화

□ 정부 · 금융 · 기업의 관계 재정립

○ **금융거래의 자기책임원칙 확립**: 금융거래에 있어서 계약을 중시하는 관행을 정착하고,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 · 원금 보장 및 리베이트 수수 등 불건전 관행 해소, 예금 · 투자에 대한 정부 보호 최소화 및 신보 · 기술신보의 운영방식 개편을 통해 정부 부담 축소

○ **정부의 역할 재정립**: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자제,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, 정부의 민간 금융기관 및 단체 인사개입 배제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간 공정한 관계 정립

○ **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관계 정립**: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이해상충,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

○ **소비자 보호 강화**: 금융거래의 복잡 다양화되는 추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, 분쟁조정체제를 개선하고,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을 확대

○ **시장규율을 중시하는 금융감독 확립**: 행정편의위주의 규제중심의 감독에서 시장규율을 보완하는 감독으로 전환하고, 감독의 소홀과 남용을 방지하고, 금융그룹화에 대한 통합감독기능 및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

□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

○ **겸업금융 확대**: 업종별 핵심업무 축소 및 부수업무 확대를 통해 겸업금융을 활성화하여 금융산업내 경쟁을 촉진, 타 금융권의 대행(agency) 업무 허용 및 금융기관간 업무제휴 활성화

○ **금융지주회사 도입**: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하여 금융 그룹화를 통한 금융기관 대형화 촉진

○ **선도금융기관 육성**: 대형화에 대한 유인제공 및 시장여건을 개선하여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선도 금융기관 육성

○ **규제 완화 및 관행 개선**: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대폭 완화하고 금융권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, 리베이트 수수 등 불건전 금융관행 개선

○ **금융기관 내부 역량 강화**: 금융기관 경영의 국제수준의 Best Practices 정착 및 성과중심의 인사조직체계 확립

□ 금융인프라의 구축

○ **금융시장의 선진화**: 주식시장, 채권시장, 연금시장, 파생상품시장의 구조 개선 및 수요기반 확충

○ 회계 · 신용정보 · 신용평가 · 지급결제 등 **시장하부구조의 선진화**

○ **전자금융의 확충**: 사이버 금융기관 설립, 증권거래의 대체거래시스템(ATS) 도입, 금융전산망 및 전자결제시스템 확충, 전자금융관련 감독 및 제도 정비

□ 금융의 국제화 추진

○ **시장개방** 및 **외환 · 자본자유화의 지속추진**, 외환시장 하부구조개선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

○ **아시아**의 **국제금융중심지**로 **발전**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 적극 유치, 각종 금융제도의 Global Standard 도입, 국제금융 하부구조 구축